

임상실습전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Effects of Mentoring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before their Clinical Practice

박수호¹, 유하나^{2*}

¹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대전대학교 간호학과

Su Ho Park¹, Hana Yoo^{2*}

¹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Daegu 41453, Korea

²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34520, Korea

[요약]

멘토링의 효과는 멘티의 역량강화, 지식향상, 적극적 태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장적응, 자신감 부족 등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 전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간호술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교수 및 임상간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임상실습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간호행위 및 지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11개의 주제를 선정한 후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14명의 멘토가 투입되어 2일동안 9~10명으로 구성된 그룹에게 실습, 상담, 동영상, 상황별 토론 등을 운영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고, 프로그램의 효과는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간호행위 수행자신감 도구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참여 후 학습태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문제해결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정형화된 교내실습교육에서 벗어나 멘토링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효과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이 단기간이 아닌 임상실습 전, 중, 후에 적용하여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ffects of mentoring education bring positive effects such as mentees' capacity building, knowledge improvement and positive attitude. The major difficulties that nursing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are low adaptability, lack of confidence, etc.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mentoring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problem-solving ability, learning attitude, and confidence in nursing skill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evaluated their effectiveness.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 a group of experts consisting of professors and clinical nurses selected 11 topics after discussing nursing skills and knowledge, which were most required in clinical practice. The program involved 14 mentors who operated practice, counseling, video clips, and contextual discussions for two days to a group of 9 to 10 people.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received the mentoring education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learning attitude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nursing skills,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blem-solving abil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mproved the educational

<http://dx.doi.org/10.14702/JPEE.2020.10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9 April 2020; Revised 19 May 2020

Accepted 19 May 2020

*Corresponding Author

E-mail: hanayoo@dju.kr

effect by using mentoring methods, away from formal in-school practice educa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mentoring education program affect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by applying it before, during, and after clinical practice rather than in a short period.

Key Words: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attitude, Mentoring, Nursing student, Problem solving competence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가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요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능력을 갖추도록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프로그램학습성과를 기반으로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전국의 간호대학생은 졸업 시에 프로그램학습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통합적 사고, 비판적 사고, 핵심기본간호술, 의사소통술, 협력관계, 임상적 추론, 전문직 표준, 리더십 등을 포함하고 있다[1].

한편,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는 학생들이 프로그램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비교과 과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교과 과정들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멘토링은 경험 또는 스킬이 많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과 의도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합의된 목표에 따라 특정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2]. 간호학생에게 멘토링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동료 멘토링[3], 선배 멘토링이[4,5] 핵심기본간호술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멘토링은 멘티에게 경력계획, 대인관계기술 발달영역에서 역할모델, 지도와 지원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회이고[6], 멘토는 지식, 노하우, 태도를 전수하여, 직장, 학교, 일상생활 등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멘티에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료나 선배학생보다는 숙련된 간호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임상상황에 기반한 지식의 연계, 노하우, 태도를 멘토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실습 현장은 실습학생의 과밀화, 간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많은 수의 환자로 바쁜 임상현장, 환자안전과 보호 등의 강화로 간호대학생은 현장지도자인 간호사의 세밀한 지도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7,8]. 특히, 첫번째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및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한다[9] 그러

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수행기술, 실습영역에 대한 지식, 문제해결능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0]. 학생들이 보통 1,2학년때 기초과목, 교내실습을 이수한 후 3학년부터 임상실습을 시작하는데 정규교육과정만으로는 임상실습을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Kown과 Seo[11]는 1년 이상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임상실습 전 교내 사전연습’및 ‘표준화된 지침에 근거한 실습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 입장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사전준비를 한다면 실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전문지식, 술기에 대한 숙련성, 문제해결능력, 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이며[11] 이러한 역량을 갖춘 졸업생의 경우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12]. 문제해결능력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탐색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13]. 학습태도 역시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지식,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나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대상자의 건강요구를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을 평가함으로써 임상실습 입문교육으로 비교과 교육과정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임상실습 입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D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1주일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사전 공지하여 참여를 유도하였고,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1일 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학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수집된 설문지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부호화 처리되어 통계 처리되고,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며 연구 종료 시 관련 문서를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사전 및 사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자에게 다과와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7 [15]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paired t-test에서 양측검증,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이었을 때 최소 171명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 대상자 213명은 분석에 적합하다.

C. 연구도구

1)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문제상황에서 실제적 문제해결 기술이 아닌 개인의 문제해결양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지각 정도를 의미하는데 [16] 이를 측정하기 위해 Heppner와 Petersen[16]이 개발하고, Hong[17]이 번안한 한국어판 문제해결능력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2문항, 4점 Likert 척도

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었고[1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2) 학습태도

학생의 습관, 신념, 동기를 포함하는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습태도 측정도구를 Hwang[18]이 수정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6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신뢰도는 Hwang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4이었고[1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1이었다.

3) 간호행위 수행자신감

간호행위 수행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11개의 상황에 각 항목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1개 상황은 무균술, 활력징후 측정, 산소투여, 인공도뇨, 경구투약, 근육주사, 정맥주사와 수액주입, 수술 전 간호와 수술 후 간호, 입원관리하기, 환자 및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다. 각 항목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행위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였다.

D.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사전-사후 종속변수의 변화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E.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임상실습 전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본간호학 교수 1인, 임상실습 지도교수 2인, 종합병원 경력 5년 이상이면서 학생 임상실습 지도 경험이 있는 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주제는 임상실습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

표 1.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Table 1. Mentoring education program

주제	목표	내용	방법
오리엔테이션	멘토-멘티관계 형성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해한다.	자기소개 프로그램 소개	멘토 14명과 멘티 전체 모임
핵심기본간호술기 연습 (9개의 프로그램)	제시된 임상상황에 따라 핵심기본간호 기술을 수행하고 임상실습에 적용할 수 있다.	1. 무균술 2. 활력징후 측정 3. 산소투여 4. 도뇨관 삽입 5. 경구투여 6. 근육주사 7. 정맥주사 8. 수술전 간호 9. 수술후 간호에 대한 그룹 실습 및 멘토링	9~10명의 학생이 1개 소그룹을 이루어 60분마다 각 실습실을 순환함. 첫째 날에는 4개의 실습실을 순환(240분), 둘째 날에는 5개의 실습실을 순환(300분)
임상상황에 대한 비디오 시청(2개의 프로그램)	이상적인 임상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임상실습에서 적용할 수 있다.	10. 신환 입원 상황에 관한 비디오 시청과 토론 11.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상황에 대해서 의사에게 알리는 상황이 연출된 비디오 시청과 토론	소그룹의 멘티들은 비디오를 보고 멘토와 함께 토론하고 멘토는 질문에 답변하는 멘토링, 각 상황에 대해 60분 간 운영
멘토-멘티 체결식	멘토-멘티 간의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체결식	멘토 14명과 멘티 전체 모임

는 간호행위와 학생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 술기, 태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11개의 주요 내용이 도출되었다. 11개의 주요내용은 9개는 핵심기본간호술기에 해당하는 다빈도 항목이었고, 의사소통과 무균술이 포함되었다. 11개의 주요 내용을 멘토링하기 위해서 임상상황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간호교육평가원의 핵심기본간호술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초안을 구성하였다.

초안은 14명의 멘토가 그룹 회의를 통해 내용을 정련화하였고, 시뮬레이션 상황의 경우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멘토가 멘토링에 쓸 수 있도록 최종 내용을 마련하였다.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은 9~10명의 멘티가 소그룹을 이루어 11개의 내용에 대하여 멘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며 각 소그룹은 총 11시간, 2일 동안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9개의 핵심기본간호술기는 무균술, 활력징후 측정, 산소투여, 도뇨관 삽입, 경구투여, 근육주사, 정맥주사, 수술전 간호, 수술후 간호에 대한 그룹 실습을 진행하면서 멘토링이 진행되었고, 2개의 주제는 신환 입원 상황,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상황에 대해서 의사에게 알리는 상황이 연출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멘토의 자격은 임상경력 2년 이상, 간호학 석사학위 이상, 임상실습 지도 경험자로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멘토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4시간의 공동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였다. 멘토의 역할은 학생들이 임상상황에 대해서 토의와 실습을 진행할 때, 틀린 점을 수정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이론적 근거에 대해 동기화를 유발하고, 현장에서의 실제

응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기본간호학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에 대한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A.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학생은 33명(15.5%), 여학생은 180명(84.5%)으로 평균 연령은 22.29세였다.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로 높은 취업률에 의한 선택이 89명(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적성에 의해 선택한 경우가 62명(29.1%),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한 선택이 45명(21.1%), 성적에 따른 선택이 13명(6.1%), 기타가 4명(1.9%)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 정도는 2.97점이었고, 교내 실습 만족도는 2.84점, 대인관계 만족도는 3.11점으로 나타났다.

B. 프로그램 전후의 종속변수의 차이

멘토링 프로그램 전후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수행자신감은 표 3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문제해결능력은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2.85점, 참여 후 2.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725, p=.469$). 학습태도의 경우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3.34점, 참여 후 3.47점으로 프로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3)

변수	범주	명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33(15.5)	
	여	180(84.5)	
연령	≤19	17(8.0)	22.29±4.57
	20~29	183(85.8)	
	30~39	8(3.7)	
	≥40	5(2.5)	
진학동기	적성	62(29.1)	
	성적	13(6.1)	
	주변인의 추천	45(21.1)	
	취업	89(41.8)	
	기타	4(1.9)	
전공만족도	범위: 1~4		2.97±0.53
교내실습만족도	범위: 1~4		2.84±0.61
대인관계만족도	범위: 1~4		3.11±0.51

표 3. 프로그램 전 후의 종속변수의 차이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 and post-test (N=213)

변수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t	p
문제해결능력	2.85±0.33	2.88±0.35	0.725	.469
학습태도	3.34±0.45	3.47±0.44	2.982	.003
수행자신감	3.26±0.68	3.90±0.66	9.434	<.001

그럼 참여 후 학습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t=2.982, p=.003$).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의 경우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3.26점, 참여 후 3.90점으로 프로그램 참여 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t=9.434, p<.001$) (표 3).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13)

	전공만족도	교내실습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r (p)				
교내실습만족도	.421(<.001)	1			
대인관계만족도	.307(<.001)	.286(<.001)	1		
문제해결능력	.279(<.001)	.183(.007)	.265(<.001)	1	
학습태도	.448(<.001)	.315(<.001)	.267(<.001)	.529(<.001)	1
수행자신감	.283(<.001)	.210(.002)	.243(<.001)	.398(<.001)	.336(<.001)

C. 변수들의 상관관계

표 4와 같이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과 학습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529, p<.001$), 학습태도와 수행자신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36, p<.001$), 문제해결능력과 수행자신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98, p<.001$)가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전공만족도는 문제해결능력($r=.279, p<.001$), 학습태도($r=.448, p<.001$), 수행자신감($r=.283, p<.001$)에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교내실습 만족도는 문제해결능력($r=.183, p=.007$), 학습태도($r=.315, p<.001$), 수행자신감($r=.210, p=.002$)에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문제해결능력($r=.265, p<.001$), 학습태도($r=.267, p<.001$), 수행자신감($r=.243, p<.001$)에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입문교육으로서 비교과 과정으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기 전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9개의 핵심기본간호술이 포함된 11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 각 멘토링의 내용은 실제 환자 상황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적용하고, 환자의 질문에 대해 간호사가 적절하게 응대하도록 구성한 간호상황 시나리오가 포함되며, 간호학생은 임상상황에 대한 토의와 실습을 수행하면서 멘토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임상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하거나[19,20],

기본간호학 전공교과과정으로 시행하고 평가한 연구[21], 시뮬레이션 전공교과과정으로 시행하고 평가한 연구[22,23]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핵심기본간호술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면서 효과를 평가하였고 교육의 효과로 학생들은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되었고 단기간 운영되었지만 간호학생의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간호교육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은 프로그램학습성과의 평가와 더불어 중요한 교육의 결과로 졸업 전 평가되어야 한다 [1]. 그래서 시험의 형태로 학생들은 졸업 전에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비교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핵심기본간호술과 관련된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 과정 이외에 비교과 과정에서의 학습성과를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교과과정에서의 평가는 시험과 연관되어 간호학생들의 긴장도를 높게 되고 학생들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본 연구의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은 핵심기본간호술의 평가보다는 임상상황에 대한 토의와 술기 실습에 대해 멘토링을 받음으로써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포함한 핵심기본간호술기에 대한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학습태도는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 선배 멘토링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 연구[5]에서도 멘토링이 전통적인 교육방식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안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입문교육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비교과 과정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과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불안을 낮추고 전공에 대한 학습태도도 향상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시뮬레이션 교육[24], 문제중심학습[25], 액션러닝[26], 팀 기반학습[27]의 교수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는데, 선행의 연구들은 교과과정에서 교수학습방법으로 적용되고, 학기를 걸쳐서 이루어진 후 평가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진 비교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단기간이 아닌 임상실습 전, 중, 후에 적용되고 간

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은 전공 만족, 교내실습 만족, 대인관계 만족,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간호학생의 전공 만족과 교내실습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확대하여 적용하여 효과평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Criteria [Internet]. Available: [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file/linkFile/%A1%DA%B0%A3%C8%A3%B1%B3%C0%B0%C0%CE%C1%F5%C6%F2%B0%A1%20%B1%E2%C1%D8%C1%FD_%C8%A8%C6%E4%C0%CC%C1%F6%20%B0%D4%BD%C3\(2017.3\).pdf](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file/linkFile/%A1%DA%B0%A3%C8%A3%B1%B3%C0%B0%C0%CE%C1%F5%C6%F2%B0%A1%20%B1%E2%C1%D8%C1%FD_%C8%A8%C6%E4%C0%CC%C1%F6%20%B0%D4%BD%C3(2017.3).pdf)
- [2] M. Murray, *Beyond the Myths and Magic of Mentoring: How to Facilitate an Effective Mentoring Proces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2001.
- [3] M. O. Yoon and Y. S. Ju, "The effects of peer mentoring learnings-based preclinical OSCE program on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7, pp. 285-295, July 2017.
- [4] Y. R. Lee and H. L. Kang, "Effects of mentoring seni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441-448, November 2016.
- [5] Y. Kim and M. Chin, "A study on the effects of mentoring program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Around the improvement of clinical compet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4, pp. 131-139, August 2015.
- [6] R. A. Noe, "An investigation of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assigned mentoring relationships," *Personnel Psychology*, vol. 41, no. 3, pp. 457-479, September 1988.
- [7] J. H. Song and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51-264, May 2013.
- [8] E. Y. Kim and S. H. Yang,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4, pp. 417-425, September 2015.
- [9] F. Sharif and S. Masoumi,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BMC Nursing*, vol. 4, no. 6, November 2005.
- [10] L. M. Harkvist, and E. C. Koop, “Students struggling in clinical? A new role for the patient simulator,”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3, no. 4, pp. 181-184, April, 2004.
- [11] I. S. Kown and Y. M. Seo,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25-33, April 2012.
- [12] F. O’Brien, M. Mooney, and M. Glacken, “Impressions of nursing before exposure to the field,”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17, no. 14, pp. 1843-1850, September 2008.
- [13]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1, pp. 71-78, February 2011.
- [14] H. R. Kim, E. Y. Choi, H. Y. Kang, and S. M. Kim,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attitude, self-efficacy and the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fter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emergency nursing car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5-13, April 2011.
- [15]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nd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 1149-1160, November 2009.
- [16] P. P. Heppner and C. H. Petersen,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9, no. 1, pp. 66-75, January 1982.
- [17] Y. S. Hong,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Child Welfare*, vol. 20, pp. 7-33, December 2005.
- [18] S. Y. Hwang,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the knowledge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ability, attitude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Ph. 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Korea, 2003.
- [19] J. S. Park, M. J. Choi, and S. Y. Jang, “The effects of preclinical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on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1, pp. 75-85, February 2015.
- [20] J. Yoon, K. J. Kim, and M. S. Choi, “The effects of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73-284, May 2013.
- [21] M. Y. Jho,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3, pp. 292-301, August 2014.
- [22] M. Y. Moon, “Effects of convergence-based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e program on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competence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7, pp. 271-284, July 2017.
- [23] H. J. Le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simulation education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1, pp. 44-50, January 2020.
- [24] J. H. Ahn, J. Y. Kim, and E. S. Hwang,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skills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in colleg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7, pp. 187-197, July 2019.
- [25] M. J. Chae,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on learning attitude,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4, pp. 793-816, 2016

[26] K. S. Jang, E. A. Kim, and H. Park, "The effects of an evidence-based nursing course using action learning 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1, pp. 119-128, 2015.

[27] K. O. Choi and Y. M. Park,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0, no. 2, pp. 154-159, November 2014.



박수호 (Su Ho Park)_정회원

2001년 2월 :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 박사
2011년 9월 ~ 2017년 2월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2017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관심분야> 건강증진, 교육방법



유하나 (Hana Yoo)_정회원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 박사
2011년 9월 ~ 2018년 2월 :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관심분야> 간호교육, 교수방법, 응급환자 간호